

대기업은 자금블랙홀... 올 회사채로 13조 끌어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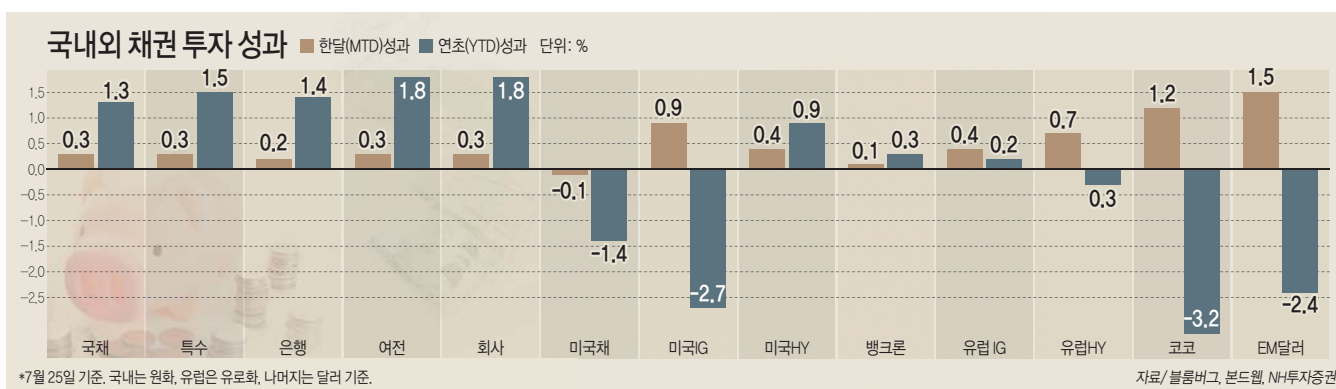
차환 1000억 이상 기업 45곳
기업 투자 유인도 감소 '지속'
비우량 크레딧물 수요 유입 전망

SK해운은 회사채 모집 규모를 기존 700억원에서 1260억원으로 늘렸다. 지난 26일부터 700억원 규모 회사채에 대한 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총 2490억원이 몰리며 흥행 몰이에 성공한 덕분이다.

대한항공은 15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조달하는 1500억원은 모두 만기도래하는 채권의 차환자금으로 사용된다. 대한항공은 오는 8월 31일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한다.

회사 측은 "부족한 자금은 당사 자체 보유자금과 수요예측 결과를 통해 증액되는 사채발행대금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계 순위 선두권 대기업 계열사들이 블랙홀 처럼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대부분 AA급 이상의 높은 신용등급에 그룹 후광까지 등에 업은 발행사들은 기관투자자의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자금조



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해외 채권 투자 메리트가 줄어들자 기관들이 앞다퉀 회사채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도 공급을 부채질 한다.

7월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신용등급 'A-' 이상인 국내 기업들의 잠재 차환수요(2018년 만기도래분에서 기 발행액을 차감한 액수)는 13조2000억원이다. 기존 발행액과 만기 도래 차액이 5000억원 이상인 72개 기업의 수요다.

이 중 차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45곳으로 10조7000억원이다.

발행사별 미차환 규모는 삼성물산(9700억원), GS칼텍스(6500억원), 하나

금융지주(6280억원), 롯데케미칼(6200억원), SK(4100억원), 한화케미칼(3550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삼성물산, GS칼텍스,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은 올해 아직 발행이 없다.

등급별 미차환액을 보면 AAA등급 1조7000억원, AA등급 7조2000억원, A등급 4조3000억원이다. 상반기 AAA등급, AA등급, A등급 발행이 각각 6조2000억원, 16조1000억원, 4조5000억원 임을 감안할 때 규모는 크지 않다.

NH투자증권 한광열 연구원은 "상반기 증액발행 경향과 신규로 발행되는 회사채 등의 영향으로 발행액이 커보이는 점

을 감안하면 차환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채 발행은 3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A등급은 상반기 발행액에 가까운 잠재 차환수요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꾸준한 발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개별 기업이나 업종별 수요는 달라질 전망이다.

석유화학·정유 업종 등의 경우 업황 호조로 인한 현금보유량 증가 및 제한적 설비투자(CAPEX) 등으로 회사채 조달 필요성이 줄었다.

기업들의 투자 유인도 많지 않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국내총생산 통계에 따르면 투자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 -0.2%에서 올해 1분기 1.0%로 호전됐다가 다시 둔해진 것도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뒷걸음질한 영향이 컸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1분기 1.8%에서 2분기 -1.3%로 마이너스 전환했고, 설비투자 증가율도 1분기 3.4%에서 2분기 -6.6%로 급속하게 냉각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와 항공기·선박 등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 탓인데 이 같은 설비투자 증가율은 2년 3개월 만에 최저다.

크레딧 시장 한 관계자는 "개별 발행사별 이슈로 인해 수요예측이 현재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년 상반기로 발행 시점을 늦추거나 사모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KB증권 전혜현 연구원은 "금리변동성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업들의 자금조달 시도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비우량 크레딧물의 경우 높은 캐리매력과 발행사 펀더멘털 개선 등이 반영되면서 수요가 견조하게 유입될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31일 오전 경기 성남 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설계 지원센터 출범식'에서 남기만 반도체협회 부회장(오른쪽)과 박청원 전자부품연구원 원장(왼쪽)이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설계기업 창업 진입장벽 허문다

'시스템반도체설계지원센터' 출범
창업·기술개발·마케팅 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설계기업 창업, 기술개발, 마케팅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 지원을 위해 31일 경기 분당에 위치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를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인호 산업부 차관을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설계기업과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운영기관인 반도체산업협회와 전자부품연구원은 반도체설계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담은 협력 양해각서(MOU)도 함께 체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초고속, 저전력을 기술기초로 자동차, 바이오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의 경우 시스템반도체 분야 창업 단절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이 침체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를 출범해 창업의 걸림돌이 되는 창업공간부터 기술, 마케팅, 인력까지 일

괄 지원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예비창업자는 전자부품연구원 시스템반도체플랫폼 연구센터에 입주해 전품종과 같이 기술개발, 창업지도도 받고,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해 창업 가능성 등을 검증하고, 창업 초기기업을 위해 반도체협회 및 전품종 내 창업보육센터에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소, 대학 등이 보유한 기술이전 등을 지원하고 '반도체성장펀드'를 활용해 창업자금 및 투자 유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기 매출이 발생하는 성장단계의 기업에는 포트폴리오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시장을 대상으로 로드쇼 및 해외 현지진출 등 마케팅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단순히 창업기업 수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업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화되고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며 "정부도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 자율차, 바이오, 스마트 가전 등 수요산업과 협업체가 우리 반도체 설계기업이 차세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지방세 납부 증가... 카드사용액 200兆 돌파

(법인)

카드사용액 전년 비 10.4% 늘어
수입차·편의점 이용 증가도 견인

올해 2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이 200조원을 넘어섰다. 개인카드 승인금액이 증가한데다 법인카드 이용금액이 5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가 7월 31일 내놓은 '2018년 2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전체 카드 승인건수와 금액은 50억2000만건, 20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0%, 10.4% 늘었다.

특히 법인카드의 승인건수와 금액은 각각 3억1000만건 39조4000억원으로 최근 5분기 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전년동기 대비 10.5%, 9.2% 증가한 수치다.

여신금융협회는 "작년 2분기 법인들의 국제 카드납부 유인이 약화됐던 것에 따른 지지효과와 최근 법인들의 지방세 납부금액 증가 등으로 실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GS SHOP 모바일쇼핑 취급액, TV쇼핑 첫 추월

2018년 2분기 GS홈쇼핑의 취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0% 신장한 1조1144억원을 기록했다.

GS홈쇼핑은 2분기 매출액은 2685억원, 영업이익은 3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 10.7% 증가했고 31일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382억원으로 173.6% 늘었다.

모바일 쇼핑이 5037억원으로 33.3% 신장하며 전체 취급액 성장을 이끌었다. 특히 모바일 쇼핑은 45.2%로 비중을 확대하며 분기 최초로 TV쇼핑을 추월했다. 같은 기간 TV쇼핑은 전년 대비 5.3% 감

(카드승인실적 추이)

(단위: 조원, 억건, %)

구분	'17.2Q	'17.3Q	'17.4Q	'18.1Q	'18.2Q	
승인 금액	전체카드	185.6(4.0)	192.5(4.4)	192.7(3.3)	193.3(1.7)	202.2(9.0)
	신용카드	145.7(3.5)	150.6(3.9)	149.9(2.1)	151.3(0.4)	157.8(8.3)
	체크카드	39.7(6.2)	41.6(6.1)	42.6(7.3)	41.8(6.7)	44.2(11.4)
승인 건수	개인카드	150.1(11.2)	156.1(11.9)	156.9(8.7)	156.4(9.7)	163.0(8.6)
	법인카드	35.6(△18.2)	36.4(△18.9)	35.9(△15.3)	37.0(△22.1)	39.4(10.5)
	전체카드	45.4(14.5)	47.5(14.4)	46.0(10.7)	44.7(11.6)	50.2(10.4)
승인 건수	신용카드	27.4(13.9)	28.8(14.3)	27.7(9.8)	26.9(10.7)	30.0(9.7)
	체크카드	18.0(15.5)	18.7(14.8)	18.2(12.1)	17.7(13.1)	20.1(11.3)
	개인카드	42.7(14.7)	44.6(14.5)	43.1(11.0)	41.9(11.8)	47.1(10.4)
법인카드	2.8(11.4)	3.0(14.3)	2.8(6.3)	2.8(8.8)	3.1(9.2)	

개인카드의 승인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한 163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전 분기(9.7%)보다는 금액과 건수 모두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카드 종류별로는 체크카드의 꾸준한 약진이 계속됐다. 1년 새 승인건수는 17억7000만건에서 20억1000만건으로 11.3%, 승인금액은 41조7000억원에서 44조2000억원으로 11.4% 늘었다. 전체 카드 결제 건수가운데 체크카드 비중은

16년 2분기 39.3%, 17년 2분기 39.7%, 18년 2분기 40.0%로 소폭 증가했다.

한편 업종별 카드승인 현황을 보면 도매 및 소매업(8.1% ↑), 숙박 및 음식점업(9.4% ↑), 운수업(9.4% ↑), 정보서비스업(9.2% ↑) 등에서 증가폭이 컸다.

여신금융협회는 "미세먼지와 무더위 관련 가전제품 판매 증가, 수입차 구매 수요 증가, 편의점 이용 증가, 지속적인 온라인 구매 증가 등이 카드 이용 실적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안정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더 이상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미래 성장 동력 모색을 위해 국내외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들에 대한 전략적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보유 주식에 대한 평가 이익과 자회사 매각 이익도 반영됐다.

GS홈쇼핑은 "GS홈쇼핑은 TV홈쇼핑에 집중돼 있던 사업 역량을 데이터 중심의 모바일 커머스로 전환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활동이 사업적인 시너지뿐 아니라 재무적인 성과를 가져다주고 있다"고 밝혔다.

/신원식 기자 tree6834@